

2. 학교체육

근대 스포츠는 신문물을 직접 경험하였던 유학생이나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자연히 우수한 인력이 운집해 있는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포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사립학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순천에는 매산중·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 순천농업학교 등이 근대 스포츠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 매산중·고등학교

1910년 미국 선교사 변요한, 고라복 목사가 금곡동 사숙에서 개교하여 1911년 매곡동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으며, 1913년 9월 고라복 선교사를 초대 교장으로 사립 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1916년 자진 폐교하고 1921년 복교된 때부터 매산학교는 서양의 근대문물을 이 지역에 보급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대 스포츠도 매산학교를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이는 서양문화를 전파시키는 선교사들과 근대문명에 눈을 뜬 청장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사 중 3대 교장 이보린(J. B. Revnolds) 박사과 4대 교장 원거(J. R. Unger) 목사는 축구·농구·야구를 특히 좋아해 때로는 시범을 보이고 기술지도를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즐겼다. 이 당시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농구 백보드가 처음 등장하여 1922년 이 학교에 부임한 김원복이 소중히 관리하였으며, 축구·야구·농구의 기술이 매산 운동장에서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승실전문대 출신이며 평양 무오축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하였던 김원복의 가르침으로 순천의 축구는 여러 가지 기초기술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강부영·김관식·김오수·김용택·오일룡·윤태룡·이경섭·임야급·정양원·최복만 등의 선수가 주축이 되어 1931년 남조선 소년축구대회에서 우승하였다. 1937년 9월 폐교될 때까지 매산학교 출신 선수들은 순천 축구발전의 밑알이 되었다. 또한 박철규, 박형렬은 교사로 근무하면서 1931팀에서도 활약하는 등 축구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50년대에는 은성고·순천고·순천농고·순천사범·순천공고 등의 학교에서 축구선수를 육성, 지도하여 학교대항경기가 활성화되었으며 각 학교의 실력이 백중하여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각 학교의 전교생들의 열띤 응원도 애교심을 고취시켰다. 하지만 이후 순천의 축구는 점차 침체되었다.

매산고등학교에 1962년 태권도부가 창설되어 창무관의 김영채 사범이 지도를 맡았다. 차은수·김홍규·곽중영·진재권·김상천·김상학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태권도는 빠르게 보급되었다. 1963년 중반에 배구·야구팀이 있었으며, 각종 체육활동이 학교체육을 바탕으로 전파되었다. 1980년대에는 축구부와 배구부를 육성하였으며, 특히 배구부는 국가대표 허희만을 배출하였다. 또한 1990년대 정구부를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매산중학교는 1970년 3월 탁구부(교장 김오봉, 감독 김은택, 지도교사 박종하, 코치 임명식, 선수 신명숙·황미숙·최은주·한영희)를 창단하여 지도자와 선수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에 힘입어 제51회 전국체전 도대표 선발전에서 준우승하였으며, 그 이듬해 전남대회 전종목을 석권하고, 제52회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여중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1972년 전국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중등부 복식에서 신명숙, 최은주 조가 준우승을 하였다. 이후

1981년 코치 방상석이 1983년까지 선수를 육성하다, 해체되었다.

1974년에는 축구부(교장 김용완, 감독 박중하, 코치 김영창)를 조직하여 1980년 11월 제3회 전남축구협회장기대회에서 우승하였다. 그후 1991년 4월 팀을 재창단하여 순천시로부터 축구부 합숙소 기금 500만 원을 전달받아 조립식 건물 30평을 건축하였다. 1993년 실력이 날로 발전하여 소년체전 도대표로 출전하였다.

1978년 5월 체육교사 이정오의 부임으로 레슬링부를 두어 훈련하던 중 1983년 제1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53kg급 황순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987년 제16회 전국소년체전 자유형에서 박종근 2위, 박우 3위 그리고 제15회 체육부장관기쟁탈 선수권대회에서 그레코로만형 박종근 2위, 박우 3위 등으로 이어졌다. 1982년에는 여자 펜싱부(교장 김홍규, 감독 김종룡, 코치 국중금, 선수 장정희·구성진·남경화·조진)를 창단하여 1983년 도대표로 선발되었으며,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여중부 개인전에서 장정희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후 최석옥·백미은·윤미정·윤수현·이의순·최인화·양현미 등의 선수들이 활약하다가 국중금 코치가 매산여고로 전근하면서 1984년 해체되었다.